

‘중대법 제외’ 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뒷전’

동구 12곳 현장 안전시설물 전무
인도 건설자재 방치... 사고 우려
감리자 지정제도 상주 ‘형식적’
“안전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를”

“몇 번을 건설자재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는지 모릅니다. 도로에 각종 자재를 널부러 놓으면 보행자들은 어떻게 지나가라는 겁니까.”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공사현장에는 안전펜스 없이 각종 건설자재들이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도로에는 철판, 나무판자, 티로폼 등이 겹겹이 쌓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고, 운전자들은 건설자재에 부딪힐 위험에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공사현장에는 공사허가표지 종이만 벽에 붙어있을 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접근금지 펜스 등 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동명동의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 또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보였다.

보행로 곳곳에 놓인 건설자재들로 인해 인도는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을 정도였고, 행인들은 자재들에 걸려 다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곤 했다. 특히 밤에는 공사현장의 위치를 알리는 안전등이 없어 어둠 속 볼썽 튀어나오는 건설자재에 시민들이 황급히 놀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인근 주민 한 모씨(62)는 “도로 곳곳에 방치된 건설자재 탓에 위험천만한 집 앞마당이 돼버렸다”며 “보행로 또한 허술하게 만들어져 어른들이 통행 중 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고 걱정했다.

이처럼 소규모 공사현장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동구에 따르면 지역 소규모 공사현장은 총 12곳(지산동 1곳, 서석동 3곳, 동명동 2곳, 용산동 2곳, 운림동 1곳, 지산동 1곳, 학동 1곳, 산수동 1곳)으로 나타났다.

공사현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연속된 5개층 이상으로 바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방치된 건설자재 등으로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생훈 기자

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아파트 등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현장에는 수시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상주 감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현장에는 일반 감리자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감리자는 현장에 있는 시간이 비

교적 짧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를 충분히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또한 현장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필 책임이 있지만, 현실은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쉽지않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고 실정이다.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광주지역 50억 미만 건설현장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총 21명이었다. 이중 16명(76.2%)이 안전조치가 미흡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조치에 느슨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때문에 관할 자치구에서 안전조치 점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과 더불어 ‘보여주기식 점검 관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송창영 한국재난 안전기술이사는 “건설현장마다 안전조치가 다르게 취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지자체 차원의 안전조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10년, 20년째 관행이 돼버린 보여주기식 현장 안전 점검은 하루빨리 없애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위험해 보인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지도 점검하고 경고나 행정처분, 심각한 경우 형사처분까지 하기도 한다”며 “현재는 안전점검을 나갈 인력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고,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건강걷기 행사 14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운동 동산마을 입구에서 열린 ‘동네 한바퀴를 걷는 든든, 어깨동무 튼튼, 건강 걷기 운동’ 행사에 참가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양·우산을 들고 백일홍이 꽃망울을 터트린 동적골을 걷고 있다. /김태규 기자

‘이웃 살해’ 40대 징역 30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1·2심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4일 강도

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 B(60대)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환준 기자

광주 올 상반기 데이트폭력 등 중요범죄 증가

거리두기 해제 여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 상반기 광주지역에서 스토킹,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중요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112신고 총 건수는 25만 7,19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상당안내중결(비출동) 사례를 제외한 출동 신고 건수는 14만 6,92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9,933건(7.3%) 증가했다.

112 출동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3년(2017-2019년) 상반기 평균과 비교해서도 5.9%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중요범죄는 전

년 대비 13.2%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이전 시기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대비 데이트폭력 94.4%, 성폭력 17.8%, 가정폭력 12.3% 등이 각각 늘어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239.3%, 협박 102%, 학교폭력 85.4%, 동물학대 61%, 피상사기 46.4% 등 범죄 신고도 각각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전년 대비 4.7%했고, 증가교통위반(25.9%), 음주운전(19.6%) 등 교통관련 신고도 각각 늘었다.

/최환준 기자

빗길 고교생 렌터카 몰다 충돌...5명 사상

고등학교생이 빌린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새벽 시간대 비 내린 광주 도심 도로에서 충돌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9분께 광산구 신가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상위 차로로 옮겨가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SUV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초반 남녀, 10대 후반인 고교생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숨졌다. SUV에 타고 있던 30대 운전자 등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이 탔던 승용차는 렌터카인데, 사고 당시 탑승자들이 모두 차 밖으로 튕겨 나와 운전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윤영봉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중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캐노피 1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jeong
본사: 광주 전남 영광군 대미면 전가리 133
(대미 1번) (자동차 산업단지내)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emart
이마트 광주점
(광주터미널) 전시중!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